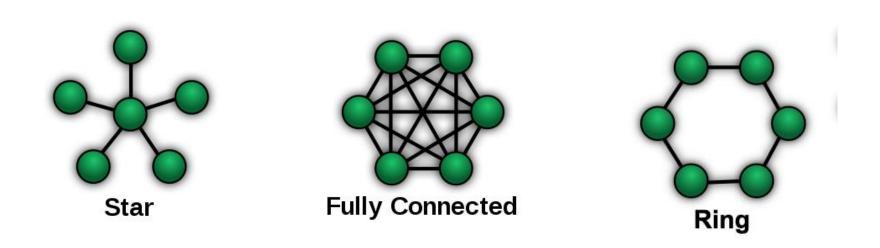
망중립성의 제문제들

2019.7.5 KrIGF

kyungsinpark@korea.ac.kr

인터넷이라는 발명의 '문명사적' 의의: 힘없는 개인도 막강한 국가나 기업처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

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구조가 이를 가능케할까?



Internet: Crowdsourcing Communication among all of us

조건없이 "옆으로 전달"

- →정보전달료(termination fee)는 없다
 - → 종량제는 없다
 - →데이터상한제도 없다_(모바일 예외)
 - →접속료는 있다

망접속료 v. 망이용료 -조삼모사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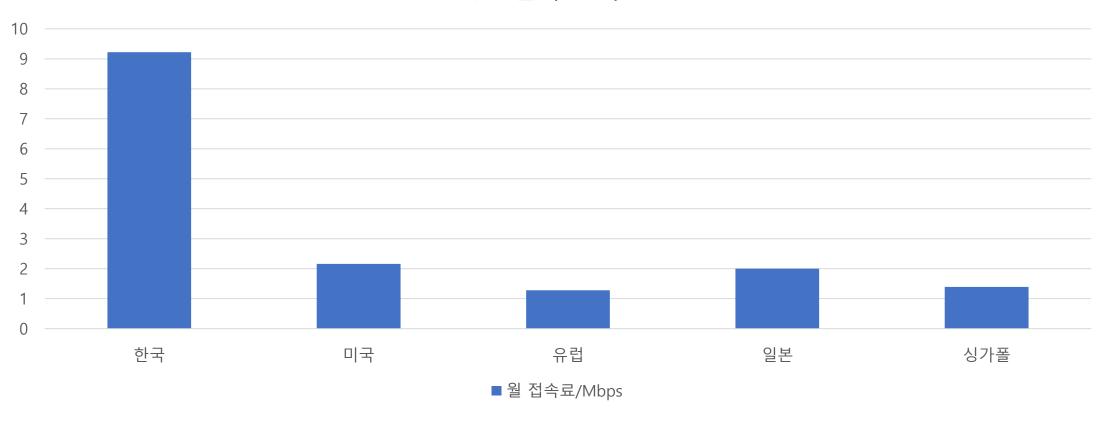
- 도서관에 책을 보냈다고 하자.
 - (1)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자가 도서관에 돈을 낸다?
 - (2)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을 보내면 도서관이 장소가 부족해서 돈을 내라고 한다?
-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다고 하자.
 - (1) 책을 많이 볼수록 도서관에 돈을 많이 낸다?
 - (2) 한꺼번에 책을 많이 빌릴수록 도서관에 돈을 많이 낸다?
- 네티즌이 자신이 올린 정보를 전세계의 누군가 본다고 해서 많이 보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는?

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 v.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

-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: 인터넷의 구동원리인 망중립성을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하는 것 > 독점규제법의 영역
- 연방통신법 상의 규제를 하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음
- 실제로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된 후에 망사업모델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음.
- 우리나라에의 교훈: 망시장의 경쟁상황 > 인터넷접속료

상호접속료 국제비교





전용회선료 비교

KT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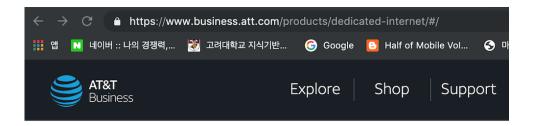
1 Mbps 월85만원,

SK브로드밴드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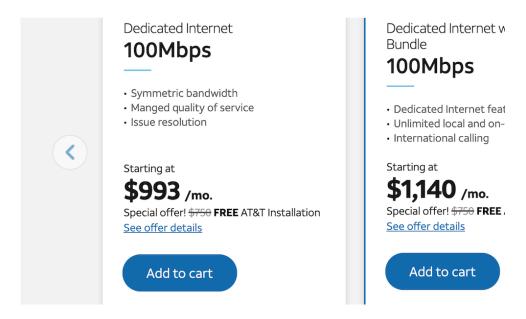
10 Mbps 월363만원

LGU+:

10 Mbps 월419만원



Combed Internet



망중립성 규범 비교

EU

• 차별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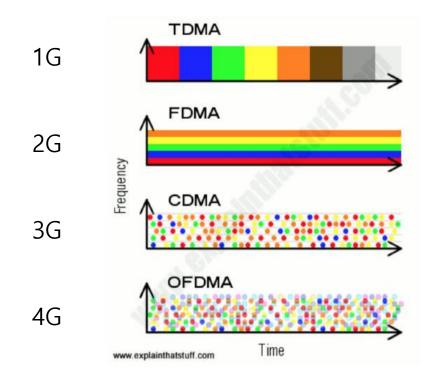
• 특수서비스의 요건: 일반인터넷의 질에 영향을 줘 서는 안됨.

한국

• '불합리한' 차별만 금지

• 특수서비스의 요건: "적정한 수준 유지"만 하면 됨.

5G가 100배 넘는 용량이라면 왜 쪼개어서 "극소수만 이용하는 1등석"을 만들어야 하는가?



5G: 2GHz → 30-300GHz

제로레이팅을 이해하려면 데이터상한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

- →종량제는 망중립성에 대한 예외
- →데이터상한제는 종량제의 일종
- →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망중립성을 성실히 적용하고 나머지 콘텐츠는 데이터상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→ 망중립성 위반
- →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망중립성 훼손 → 규제필요

제로레이팅이 콘텐츠시장에 주는 영향

IT·통합

2명중 1명 "동영상 제로레이팅시 이통사 갈아탄다"

최종수정 2018.04.05 17:09 기사입력 2018.04.05 17:0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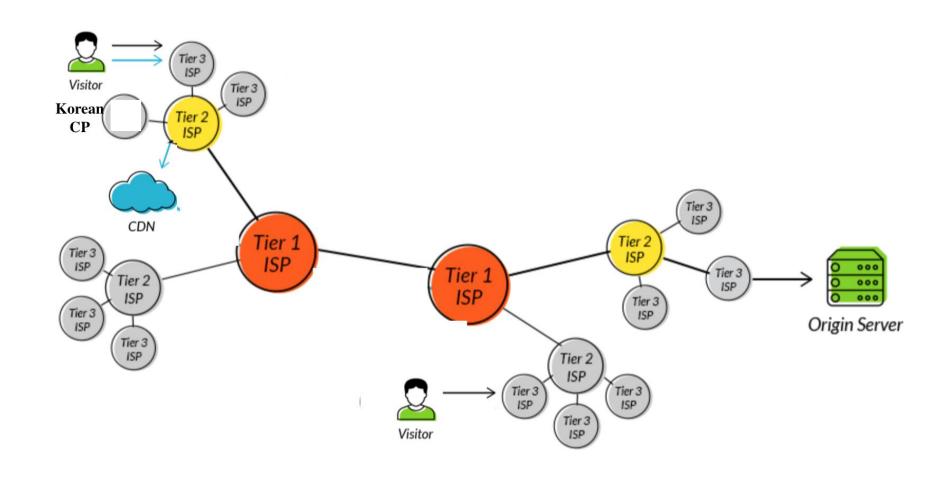
댓글 쓰기

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50% "제로레이팅 통신비 절감효과 있다" "안 쓰던 서비스도 제로레이팅 적용 땐 사용"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 ··주요 마케팅 수단으로

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이 발간한 '2017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' 보고서에 따르면, 타 통신사에서 동영상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신사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59.7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구 분	뉴스	소셜네트워크	음악청취	동영상	게임	전자상거래	모바일메신저
전환 의향	34.5%	38.2%	49.5%	59.7%	29.8%	36.4%	45.1%

페이스북-SKB 접속 난(亂)과 2016년 시행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



접속료 (역)차별론의 해석:

캐시서버접속과 인터넷접속은 같은 상품인가?

